

필립스 엑서터 도서관의 형태분석을 통한 루이스 칸 건축의 개별성과 공유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ngularity and Commonality in Louis Kahn's Architecture focus
on the Morphological Analysis of Phillips Exeter Academy Library

오광석* / Oh, Kwang-Sue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institution' in Louis Kahn's architecture and to reveal that it is expressed through singularity and commonality, which have two aspects; formal-material(eidos-hylé) aspect and phenomenological aspect. Under these recognitions, this paper shows the detail analysis on design process of Phillips Exeter Academy Library, focusing on his writings and sketch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c form is maintained through the design process of the Exeter library, and it is derived from the consideration of the human activities in the library. And second, each 'room' of the library acquires its singularity through structure and light. And the 'plan' is based on the commonality inherent in the singularity of each room. And the last, singularity and commonality are revealed not only in the relation of architectural elements but also in the relation with man and architecture.

키워드 : 루이스 칸, 엑서터 도서관, 시설/제도, 개별성, 공유성

Keywords : Louis Kahn, Exeter Library, Institution, Singularity, Commonality

1. 서론

이 논문은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의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 도서관(이하부터 엑서터 도서관으로 칭함)의 형태 분석을 통해 그가 추구한 시설/제도(institution)¹⁾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한 의미들이 개별성과 공유성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루이스 칸의 건축은 건물이라는 하나의 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는 인간의 의지 즉, 제도로서의 의미도 함께 논의될 때 비로소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시설/제도의 개념이 루이스 칸의 건축에 있어서 어떠한 본질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 다음, 이러한 의미들이 명확히 드러나는 일련의 도서관 계획들²⁾ 중 유일하게 지어진 엑서터 도서관을 '개별성과 공유성'이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시설/제도로서의 의미가 엑서터 도서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루이스 칸 자신이 그의 건축이론에서 강조한 방(room)

과 평면(plan), 구조(structure)와 빛(light)이라는 4개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루이스 칸이 실제로 행한 스케치와 어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칫 결과물로서의 건축 형태나 공간 분석에만 주목함으로써 설계 과정에 투여되는 건축가 자신의 사고들이 간과되고 있음을 극복하고자 한다.

2. 시설/제도(institution)로서의 건축

루이스 칸은 건축 공간이란 생활이 영위되는 하나의 거처로

1)'institution'은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핵심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이중적이며, 사전적 의미에서도 사회의 '제도'로서의 의미와 '시설'로서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시설/제도'로 표기한다. 안용희, 루이스 칸의 건축론, 서울대 박사논문, 2002, pp.109-111, 김광현, Le Corbusier와 Louis Kahn 건축의 비교를 통한 '시설'의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10호, 2001, p.135

2)워싱턴대학 도서관 계획(1956), 엑서터 도서관(1966-1972), 신학연합대학원 도서관 계획(1972) 등 루이스 칸이 행한 일련의 도서관 계획들에는 시설/제도로서의 의미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난다. Kohane, Peter, Louis I. Kahn and the Library: Genesis and Expression of Form, VIA, No.10, 1990, p.99

* 정회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전임강사

서,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된 시설/제도에 대한 바람(desire)이나 영감(inspiration)으로 충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³⁾ 즉, 건축은 인간의 제도를 건물이라는 하나의 시설로 이루고자 할 때 시작되며, 이러한 시설/제도는 인간에게 내재된 보편적인 본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다. 칸은 이러한 바람을 깨닫기 위해 인간의 행위를 다시 독해함으로써, 시설/제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다.

루이스 칸의 '원초의 학교'에는 이러한 '시설/제도로서의 건축'에 대한 개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학교는 한 그루의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선생인지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 밑에서 자신들이 학생인지를 모르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바라던 공간이 건립되어 최초의 학교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건립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학교는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즉, 우리들의 바람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동의인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서로에게 동의하고 최초의 교실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의 시작입니다."⁴⁾

여기서 루이스 칸은 '한 그루 나무'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배움에 대한 바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바람은 인간의 공유된 감정임을 인식하였다. 한 그루의 나무 아래, 한 사람의 선생과 몇 사람의 학생들을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에 내재된 어떤 것, 즉 '배움에 대한 바람'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과 학생들 사이에 공유된 감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선생의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이것은 배움에 대한 바람이라는 공유된 감정도 각각 다른 양상을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건축의 영역으로 환원해 보면, 건축가는 하나의 시설로서의 학교를 만들지만, 루이스 칸은 배움에 대한 영감을 고무시킬 수 있는 '시설/제도로서의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가가 인간과 건축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공유된 본성에 내재하는 바람을 구현하고자 할 때, 비로소 건축은 시설/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칸이 제시하는 시설/제도란 경직된 건물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그는 "시설/제도는 건물이 아니다"⁵⁾라

고 단정하고 있다. 그것은 건축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변하지 않는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기 위한 통로이다. 이때 개인의 독특한 생활은 환원된 인간의 삶에 투영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되묻고 있는 시설/제도는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된 바람이나 영감으로 충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그에게 있어서 건축은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제도'를 다시 숙고하기 위한 원점이었다. 또 "시설/제도는 그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동의이며,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이다"⁶⁾라고 할 때, 동의란 개별자들의 뜻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며, 동시에 그 개별자들의 바람이 인간의 공통된 본성, 즉 공유된 바람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확대 해석한다면, 칸이 그의 건축에서 계속 묻고 있는 개념인 '침묵', '느낌', '깨달음', '평면', '측정할 수 없는 것', '존재' 등은 공통된 본성을 담고 있는 말이며, 다른 한편으로 '빛', '사고', '지식', '방', '측정할 수 있는 것', '현존' 등은 개별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쌍을 이루고 있는 짝 개념들은 양자택일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라기보다는 양자 모두가 이미 상대자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루이스 칸은 이중적인 양자 개념 사이를 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이 지니는 '시설/제도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루이스 칸의 건축이 근, 현대건축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보편적 건축'⁷⁾을 표방한 근대 건축이 비판받는 데에는 근대 건축이 지니는 획일화의 경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경제적 논리와 합리성을 전제로 공간과 형태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조차도 요소로 분할하였다. 즉, 근대라는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부분을 전체의 입장에서 분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하나의 이상으로 삼아 왔다. 한편 오늘날의 현대건축은 독립적인 개인의 위치를 중시하고 공간과 형태를 파편화한 나머지, 상호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현대문화의 특이성과 평행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근, 현대 건축에 대한 단언적 평가가 단편적 경향에 대한 일부 왜곡된 시각일 수 있지만, 근, 현대 건축이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근대건축이든 현대건축이든, 부분에 대한 이해는 루

5)Wurman, Op. Cit., p.168

6)Wurman, Op. Cit., p.168

7)근대건축국제회의(CIAM)는 라 사라 선언에서 '보편적 건축'을 표방하면서 건축에서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해 왔다. 이러한 오류에 대한 반성이 Team 10을 중심으로 戰後 CIAM 내에서 새로운 경향으로 부각되었고, 이후 전개되는 현대건축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오광석·서정일·김광현, 전후 CIAM의 거주개념과 개별성 논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5호, 2005, p.143

3)Brownlee, David B. & De Long, David G.,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91, p.94

4)Wurman, Richard Saul,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Rizzoli, New York, 1986, p.176

이스 칸이 의미하는 부분의 개별성과 차원을 달리 한다. 그의 건축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명확하고 뚜렷한 위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분은 단지 전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룸으로써 그 존재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며, 전체는 부분을 흡수하거나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내재하는 공통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체라는 점이다. 이처럼 그의 건축이론에서는 부분과 전체가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특성과 공통적이고 공유되는 특성이라는 관계에서 분절되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과 전체는 공간과 형태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생활하고 삶을 누리는 개별자로서의 인간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공유된 본성, 즉 인간의 공통된 합의로서 이루어진 제도적 측면을 건축이라는 시설로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이스 칸이 제시하는 시설/제도로서의 건축에는 개별과 공유라는 양면적 관계가 내재하고 있다. 또, 이러한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근, 현대건축이 간과해 온 지점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건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제이다.

3. 개별성과 공유성의 정의

개별성이란 각 개체(혹은 개인)⁸⁾들을 구별 짓는 고유한 속성으로써, 루이스 칸은 이러한 속성을 ‘단독성(singularity)’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버지니아 샤로테스빌 대학에서 칸은 “당신은 자신의 단독성(singularity)을 인간의 동의(human agreement)를 내재하고 있는 어떤 성질과 관련시키는 것이고, 당신만이 부여할 수 있는 인간의 반응으로서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어떤 성질과 관련시킨다”⁹⁾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의 동의’는 단독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개체(혹은 개인)들의 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통적인 성격은 그것들이 지니는 단독성으로부터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통성을 전제로 하는 개체(혹은 개인)들의 단독성을 본 논문에서는 ‘개별성’이라는 일반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칸은 “하나의 감동적인 예술 작품이 가져야만 하는 특질은 특별하거나 반드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공유될 수 있는 성격(commonality)이다”¹⁰⁾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는 “어떤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의미란,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그 생각이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그러한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그리고 그가 느꼈던 것을 당신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느낌에 대해 대단한 동의를 할 것이다”¹¹⁾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칸은 깨달음을 통해 하나의 개체로서 개인이 지니는 가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깨달음’이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가치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깨달음에는 이미 공유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각각의 개체(혹은 개인)들이 지니는 개별성 속에 내재된 공통된 성격으로 인해, 부분으로서의 개체들이 ‘하나의 전체’¹²⁾를 이루게 된다. 이 때,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하는 성격을 본 논문에서는 공유성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공유성은 각각의 개별성들을 전체로 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그의 방(room)과 평면(plan)의 이론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각각의 방들은 그것들에 내재하는 공유된 성격을 통해 평면, 즉 ‘방들의 사회’를 이루게 된다. 이때 ‘사회’의 존재 의미는 개별성을 전제로 하는 공유성에서 찾을 수 있다. 또, 평면은 각각의 방들이 지니는 개별성이 유지됨으로써 그 존재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루이스 칸은 방이라는 개별적인 부분이 보다 큰 전체에 대하여 공유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을 평면이라 보고 있다.

루이스 칸은 인간에게는 개인으로서의 속성(singularity)과 공동체, 즉 사회를 이루는 개체로서의 속성(commonality)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초기에 가졌던 그의 사고에서 이러한 양면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는 실제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그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원초의 학교에서는 ‘배움에 대한 영감’, 제1유니테리언교회(1958-68)에서는 ‘물음에 대한 영감’, 브린모어대학기숙사(1960-64)에서는 ‘가정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방글라데시국회의사당(1962-74)에서는 ‘모임에 대한 영감’ 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¹³⁾ 그런데 칸은 이러한 사고를 공간을 만들어 내는 실제 곧, 구조와 재료를 통한 축조의 과정과 동시에 탐색함으로써, 물질과 정신, 구조와 공간, 공간과 인간 등 여러 층위로 이러한 개별성과 공유성의 관계를 확장시켰다. 다

8)개체(individual)의 어원은 「분할되지 않는 것」이라는 희랍어 atomon의 라틴어 어휘인 individuum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상 분할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단일하고 독립된 통일적 존재를 의미한다. 민중서관편집국, 철학소사전, 현음사, 1983, p.10

9)Wurman, Op. Cit., p.133

10)Wurman, Op. Cit., p.175

11)Ronner, Heinz & Jhaveri, Sharad, Louis I. Kahn: Complete Work 1935-74, Birkhäuser, Basel, 1987, p.295

12)전체(the whole)는 부분에 상대되는 말로써 전체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부분은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전체가 부분의 단순한 총화로 생각될 경우, 전체는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이 특정한 상호 관계 내지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하여 결부되고 전체가 특정한 구조를 갖는 경우, 전체는 부분의 총화 이상의 뜻을 가지며 부분도 전체를 떠나서는 그 의미가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의 ‘전체’는 두 번째의 경우를 의미한다. 민중서관편집국, Op. Cit., p.189

13)Brownlee & De Long, Op. Cit., pp.94-111

시 말해, 그의 이러한 사고는 '시설/제도로서의 건축'에서 탐구했던 인간과 건축의 관계뿐만 아니라 건축을 이루는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즉, 그의 건축에서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그것과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 우열의 위계를 가지기보다는 각각의 요소들이 그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 내재된 질서에 따라 서로 결합된다. 이렇게 결합된 전체는 보편적이거나 분화되지 않은 요소(또는 공간)들이 아니라, 동등하지 않은 요소(또는 공간)들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한다는 칸의 기본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¹⁴⁾ 그리고 동등하지 않은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 각각의 요소들이 지니는 개별성은 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보는 개별성과 공유성은 주로 건물을 이루는 구조나 재료의 크기, 모양, 성질, 그리고 빛의 성질 등 물리적인 특성을 통해 표현되며, 이것은 형상·질료적 측면¹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인간과 건축과의 관계에서 보는 개별성과 공유성은 주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본질적 측면으로 시설/제도로서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격이다. 즉, 구조나 재료 그리고 빛 등을 통해 만들어진 건축 공간의 형상을 직관적, 관념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인간의 의식에는 개별성과 공유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를 현상학적 측면¹⁶⁾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공유성은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연결이 내재된 분리'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때, 개별성이 분리에 그리고 공유성이 연결에 직접 연관되기보다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통해 표현된다. 이들 각각에는 서로 상대자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양자는 보다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건축의 요소들에 의한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식

14)Kohane, Op. Cit., p.102

15)형상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서, 예를 들면 집은 소재(질료)와 그것을 결합하는 구조상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습이 형상이다. 그에 의하면, 실체는 형상과 질료로 되어 있으며, 형상은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는 본질적인 특징이다. 형상은 가능태로서 질료의 실현이다. 반면에 질료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형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넓은 뜻으로는 소재의 뜻이며, 인간의 형상 작용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집의 구조를 형상이라고 한다면 소재 등이 질료이다. 질료는 형상에 의해서 한정되는 것이며, 형상이 실현될 가능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목재는 집에 대해서는 질료이지만, 목재로서의 형상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양자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다. 민중서관편집국, Op. Cit., p.211, 249

16)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의 현상학은 사실(事實)의 본질을 직관에 의해 이해하고 판단하는 의식을 다루는 학문으로, 본 논문에서 현상학적 측면이란 구조(재료 포함)나 빛에 의해 나타나는 형상·질료적 측면을 통해 부여되는 인간의 의식적 측면을 말한다. 가령 개구부를 통해 시각적 연결이 가능하게 될 때, 이러한 시각적 연결을 통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암시를 줌으로써 그 행위의 성격을 의식하게 하든지, 혹은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의 재료가 주는 질감이나 빛의 성질 등을 통해 친밀감이나 웅장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공간의 성격을 의식하게 하는 등의 의식적 측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측면에는 형상·질료적 측면을 이루는 존재이유가 내재되어 있다.

적 차원을 통한 정신적인 연결을 동시에 가지는 '연결의 건축(Architecture of Connection)'을 이루게 된다. 이때, 연결이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는 형상·질료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연결이나 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간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위들 간의 관계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4.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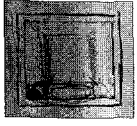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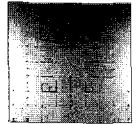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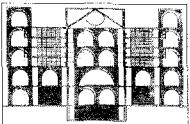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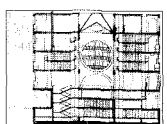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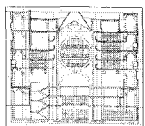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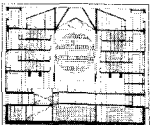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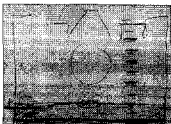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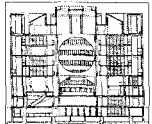
엑서터 도서관의 설계 과정에서 제안된 각 계획안들의 평면과 단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요한 형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표 1> 평면의 계획안별 추이를 보면, '중앙부-내주부-외주부'로 이루어진 구성이 최종 계획안까지 유지된다. 그리고 단면의 경우,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이루어진 구성이 제5안을 제외하고는 최종 계획안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엑서터 도서관의 공간구성은 '평면의 3중 구성과 단면의 3층부 구성'을 전제로 해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식은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¹⁷⁾으로써, 'Form 스케치'¹⁸⁾를 반영하고 있다.

루이스 칸은 1970년 2월 15일 엑서터에서 행한 강연에서 "엑서터 도서관은 빛이 있는 주위로부터 시작되었다. 독서를 하는 방은 사람이 혼자서 창가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개인열람석(carrel)이 되며, 그러한 공간을 담고 있는 구조에서 발견되는 장소라고 느꼈다. 나는 벽돌로 만들어진 도넛과 같은 건물의 외주부를 책들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넛 같은 내주부를, 책들이 빛으로부터 떨어져서 보존되는 장소로서 만들었다.

17)오광석, 루이스 칸의 엑서터 도서관 스케치 분석을 통한 기본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학회논문집 14권 3호, p.41. 이 논문에서는 엑서터 도서관의 각 단계별 계획안에서 루이스 칸이 행한 176장의 자필 스케치와 도면들을 날짜별로 분류하여 그 계획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18)Wickersham, Jay, The Making of Exeter Library, The Harvard Architecture Review, No.7, 1989, pp.140-142. 'Form'은 루이스 칸의 건축적 사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써, 그는 "What characterized one existence will from another."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간의 본성'이나 '존재의지'에 대한 형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칸의 'Form'은 '형태', 또는 '선-형태'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이들 어휘들은 칸의 개념을 충분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루이스 칸의 건축적 사유에서 'Form'의 의미가 설계과정을 통해 어떻게 실체화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이고, 그 일환으로 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엑서터 도서관의 스케치에 주목한 것이다. 즉, 칸은 엑서터 도서관의 'Form'을 통해 '도서관의 정신' 즉, 도서관이 진정으로 어떠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고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이것은 그의 스케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Form'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안용희, 루이스 칸의 건축준제론, 서울대 박사논문, 2002, pp.223-227)을 참조.

<표 1> 단계별 계획안의 변화

계획안 (年. 月)	평면 (기준층)	단면
FORM 스케치 (66.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 중앙부/ 내주부/ 외주부 • 단면: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 隅角진입 	
제 1 안 (6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공간): 중앙홀/ 서가와 서비스코어/ 개인열람실과 일반열람실 • 단면(구조): 벽돌아치/ 콘크리트 바닥판, 중2층/ 벽돌아치 • 隅角진입: 2-Bay 탑에 의한 진입 	
제 2 안 (6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면: 중앙홀 구조(벽)와 내주부 구조(바닥판)의 분리 중앙홀 벽의 형상(원형개구부): 중앙홀과 서가와의 관계 서가의 바닥 구조: joist slab • 입면: 개인열람실의 bay system과 기둥의 역학적 관계를 형상으로 표현 • 隅角진입: 1-Bay 탑에 의한 진입 	
제 3 안 (66. 11)	제 2 안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면: 1층의 중2층이 제거됨(우측 도판은 아직 제거되기 전 단면) 중앙홀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원형 개구부: 아치와 같은 구조적 역할 서가의 바닥 구조: one-way slab와 보(2층 천장부) • 隅角진입: 탑의 규모가 축소 (중앙홀로의 진입에 대한 검토) 	
제 4 안 (6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 탑의 제거로 인한 모퉁이 부분의 형태 변형 • 단면: 지붕층의 형태 변형(층수 제한) 중앙홀 구조: 현수 구조(저층부 아치 구조의 제거) 외주부 구조: 벽돌 Pier와 Flat 아치 • 中央(변형된 隅角)진입: 나선형계단(입구 문과 일체)에 의한 진입 	
제 5 안 (68. 2)	제 4 안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비의 초과로 인한 감액案 • 단면: 저층부(1층)의 제거 	
제 6 안 (7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면: 중앙홀구조: 콘크리트 아치(2층 천장부)와 Tie-Bar X자형 Plate Girder, 대각선 방향의 모퉁이기둥 • 中央(변형된 隅角)진입: 나선형계단(입구의 문과 독립)에 의한 진입 	

중앙은 결국 두 개의 연속적인 도넛들의 결과이다. 그곳은 하나의 입구로서 커다란 원형 개구부를 통해 당신의 모든 주위

로 책들이 보이는 장소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 건물에서 책들로 초대받고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¹⁹⁾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기본적인 3개의 공간들을 대응시켰으며, 설계 과정에서 기본형식을 명확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즉, 내관자가 책으로 초대받고 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중앙홀을, 책을 보관하며 각종 서비스 공간을 수용하는 장소로서 내주부를, 또 빛이 있는 곳에서 독서를 위한 장소로서 외주부를 각각 대응시켰다. 이러한 행위들 간의 관계와 움직임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형식이 되었다. 그리고 구조나 재료, 빛의 선택 등에 관여하는 ‘Design’을 언급함으로써 ‘Form’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배움’이 책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두 가지의 상호 보완적인 행위에 필연적으로 연유된다는 자각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독서라는 개인적 자성의 행위와 인간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교류의 행위라는 두 가지 차원의 행위가 공간적으로 전개된다. 내적 성찰을 위한 친밀한 스케일의 개인열람실은 토론이나 상호 교류를 위한 거대한 중앙홀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행위에 대한 건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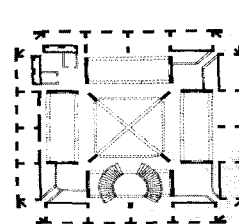
5. 개별성과 공유성의 상관관계

앞 장에서 도출한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을 통해 루이스 칸의 설계 개념을 이해하였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엑서터 도서관에서 나타나는 개별성과 공유성을 형상·질료적 측면과 현상학적 측면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고찰하고자 한다. 전자는 구조와 빛에 의해 방과 평면이 실체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측면이라면, 후자는 실체화된 방과 평면 사이의 관계를 통해, 도서관이라는 시설/제도로서의 의미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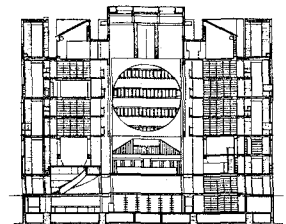
5.1. 형상·질료적 측면

(1) 구조와 빛에 의한 개별성

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들이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그림 1> 구조평면도(최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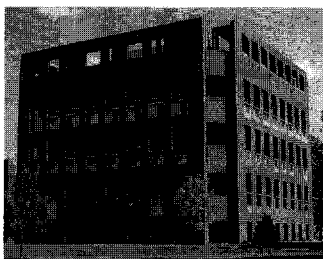


<그림 2> 단면도(최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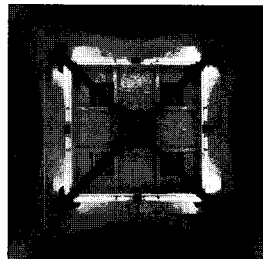
19)Kohane, Op. Cit., p.392

평면에서는 중앙홀과 내주부, 그리고 외주부로 분절되어 있으며, 또 단면에서는 저층부와 중층부, 그리고 고층부로 분절되어 있다. 이러한 분절은 구조와 빛을 통해 표현되며, 루이스 칸의 방(room)에 대한 개념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방은 “그 자체의 독자적인 구조와 빛”²⁰⁾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각의 방들은 독립적인 결합 방식으로 전체 평면을 구성한다.

엑서터 도서관의 평면과 단면에서 나타나듯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중앙홀은 그것을 한정하는 벽과 사선 방향의 기둥, 그리고 X자형 보(plate girder) 등에 의해 서가가 있는 내주부와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있다.<그림 1, 2> 그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중앙홀을 한정하는 벽은 제1안에서는 중앙홀의 벽과 서가의 바닥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후 계획안부터는 서가를 지지하는 바닥판과 중앙홀의 벽이 구조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홀을 지지하는 사선 방향의 기둥은 초기 안부터 제5안까지는 직교 구조체계(orthogonal system)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제6안에서 변형된 사선 방향의 기둥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체의 직교 구조체계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중앙홀을 공간적으로 분리(혹은 독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홀의 지붕 구조는 최종 계획안(제6안)에서 거대한 X형 콘크리트 보로 대체된다.<그림 4> 실제로 이 콘크리트 보(두께 18인치, 춤 16피트, 무게 87톤)는 지붕 슬래브의 하중을 콘크리트 기둥으로 전달하는 구조적 역할을 하지만, 주요 기능은 중앙홀 상부의 4면에 있는 클리어스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산란시키고 걸러주는 빛의 조절 장치로서의 역할이다. 또 공학적으로 충분히 여분이 있는 구조체이지만, 심리적으로 중앙홀을 지탱하는 시각적인 안정감을 부여한다. 특히, 이 보는 독자적인 자체의 지붕 구조로서 중앙홀을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만든다.



<그림 3> 개인열람석의 베이스시스템 입면



<그림 4> 중앙홀 상부

내주부를 이루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서가는 중2층을 가지고 있으며, 단면상에서 중앙홀과 외주부로부터 분절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적 분절로 인해 내주부의 서가는 중앙홀에서의 소음이나 반향을 차단하는 음향적인 효과를 가지게 된다. 특히,

내주부의 네 모퉁이 부분에 있는 서비스 코어는 내주부를 지지하는 ‘속이 빈 기둥(hollowed column)’으로 분절되어 있음으로써, 루이스 칸의 ‘served and servant spaces’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또, 조적조로 이루어진 개인열람석 공간은 벽돌 기둥(베이 시스템과 일치된 벽기둥)에 의해 단위공간으로 분절되어 있음으로써, 개별공간으로서의 ‘친밀감(intimacy)’을 느낄 수 있다.<그림 8>

외주부는 단면상에서 하나의 연속되는 구조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즉, 중층부에서의 개인열람석 구조(jack arch)는 저층부(1층)에서 아케이드를 형성하고, 고층부(지붕층)에서는 옥상정원을 둘러싸는 아케이드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수직 방향으로 연속되는 구조는 외주부를 내주부로부터 분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체 건물의 네 모퉁이를 파냄으로써 이러한 외주부의 구조가 드러나게 되고, 분절의 효과는 보다 강조된다.<그림 3>

이러한 구조적인 분절은 각 공간의 성격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루이스 칸의 구조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즉, 그는 “구조 자체에 크고 작은 공간의 형(型)들이 내재한다면, 그것들은 그 공간이 ‘되고자 하는 바’와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건축가의 생각에 근접해야 할 것이다. 벽감(niche)과 볼트들을 지니는 조적조의 내력벽 구조는, 그러한 공간[독서를 위한]을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구조적 질서를 드러내고자 한다”²¹⁾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위를 담고 있는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친밀한 독서 공간과 책들로 둘러싸인 웅장한 공용 공간인 중앙홀을 구조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 루이스 칸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와 같은 구조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통해, 평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방들은 서로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앙홀과 내주부 그리고 외주부는 각각의 다른 층고를 가짐으로써 공간 볼륨 상으로도 구별된다. 즉, 중앙홀은 3개 층의 층고를 가지고 있으며, 내주부는 중2층에 의한 1/2개 층의 층고를, 그리고 외주부는 1개 층의 층고를 가지고 있다. 또, 도서관의 방습이나 방음을 위해 1층은 중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빛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홀의 상부로부터 유입되는 고측광은 중앙홀의 공간적 성격을 규정하고, 이 빛은 “정방형의 방은 그것이 정방형으로 파악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빛을 필요로 한다”²²⁾라는 칸의 방(room)에 대한 개념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4> 즉, 중앙홀이라는 하나의 방은 그 자체의 독자적인 구조(클리어스토리와 X자형 보)에 의해 유입된 빛으로 한정되며, 이때 그 방의 구조를 이루는 재료는 빛의 성질을 표현하고, 구조체에 의해 반사된 빛은 재료의 물성을 드러낸다. 그는 “중앙에 있는 방에서 빛을 감싸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빛이 흘러 나가지 않도록 구조를 선택하였다. 위

20)Latour, Alessandra,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New York, 1991, pp.263-264

21)Latour, Op. Cit., p.69

22)Latour, Op. Cit., p.264

로부터 빛을 유입하는 구조는 결국 비나 눈으로 인해 유지 관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에, 클리어스토리는 빛을 측면에서 유입한 뒤, 보의 벽면에 의해 반사시키게 된다”²³⁾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간접채광으로 인해 중앙홀은 서가가 있는 내주부(인공광에 의한 조명)와 빛의 질적인 면에서 구별된다. 이에 반해, 직접채광이 이루어지는 외주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개인열람석의 작은 창을 통해 자기만의 조망과 빛을 가지게 된다. “나는 개인열람석이 빛과 교감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조그마한 창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은 프라이버시와 당신이 원하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²⁴⁾라는 칸의 언급에서처럼, 이 빛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오우크 패널과 더불어 개인열람석 공간에 개별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한편, 작은 창 위에 있는 큰 창은 내부의 일반 열람실과 중2층에 있는 개인열람석 공간을 위한 채광에 사용된다.<그림 8, 11> 이와 같이 빛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앙홀과 내주부 그리고 외주부는 서로 구별되며, 이것은 공간을 분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칸은 중앙홀 상부로부터 유입되는 간접광을 ‘청색광(blue light)’으로, 그리고 개인열람석과 일반 열람실로 유입되는 직접광을 ‘백색광(white light)’으로 각각 칭하면서, 빛의 성질에 있어서 각각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²⁵⁾

이상으로 엑서터 도서관의 공간 구성을 구조와 빛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엑서터 도서관의 평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방들 즉, 중앙홀, 내주부를 구성하는 서가와 서비스 코어, 그리고 외주부를 구성하는 개인열람석과 일반 열람실은 구조와 빛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분절로 인해, 각각의 방들은 개별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러한 개별성은 물질적인 실체로서의 구조와 비물질적인 실체로서의 빛에 의해 획득되는 형상·질료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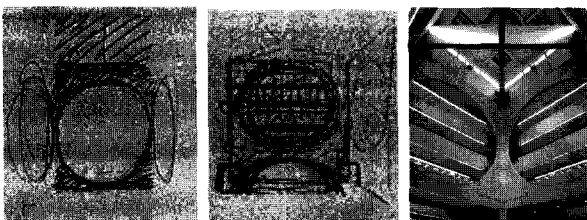
(2) 구조와 빛에 의한 공유성

구조와 빛을 통해 개별성을 획득한 각각의 방들은 형상·질료적 측면에서 서로 공유하는 어떤 성질을 지닌다. 중앙홀의 경우, 그것을 한정하는 벽의 형상이 평면상 정사각형으로 서가가 있는 내주부에 등질하게 접한다.<그림 1> 등변과 등각, 그리고

정사각형의 형상을 규정짓는 빛(고축광) 등에 의해 중앙홀은 내주부나 외주부의 형상과 등질한 성격을 가진다.

특히, 중앙홀의 벽면에 있는 커다란 원형 개구부를 통해 중앙홀과 서가를 시각적으로 연결시키는 검토가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결은 두 공간 사이에 등질한 공간적 관계를 증진시킨다.<그림 5, 6, 7> 이러한 사실은 일본인 건축가 히데키 시미즈에 의해 그려진 엑서터 도서관의 초기 평면과의 비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²⁶⁾ 이 평면도에서는 두 번에 있는 서비스 코어로 인해 중앙 공간과 주변 공간 사이의 관계가 약화된다. 반면에 최종 평면도에서는 형상·질료적 측면에서 등질한 네 면 모두에서 커다란 원형 개구부를 통해 시각적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앙홀과 서가와 공간적 관계가 증진된다.

한편, 개인열람석의 경우 벽돌 기둥과 아치 구조에 의해 분절되어 있지만, 규칙적인 구조 체계(bay system)와 창으로 유입되는 빛의 리듬으로 인해, 수평방향의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된다.<그림 8> 즉, 같은 스패의 구조 베이가 반복됨으로써 하나의 아케이드로 인식된다. 또, 아케이드를 이루는 외주부 전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입·단면상에서 수직방향의 연속성을 가진다.<그림 3, 9> 이러한 수평과 수직방향의 연속성으로 인해 개인열람석이 있는 외주부는 구조적인 통일성을 가진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입면의 형상에서 더욱 강조된다. 외벽의 자중만을 지지하는 벽돌 기둥들은 위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데, 이것은 힘이 전달되는 역학적 관계를 형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층부부터 고층부까지 균일한 폭을 지니는 내부의 벽돌기둥²⁷⁾보다도 훨씬 강력한 구조적 표현이 된다.<그림 3> 즉, 기둥의 폭이 균일한 경우는 한 층의 가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깨어지지 않지만, 단계적인 변화에 의한 연속성(gradation)을 띠는 경우는 한 층의 가감으로도 전체적인 통일성이 깨어진다. 이러한 표현은 연속성을 지니는 구조적 통일성으로 루이스 칸의 ‘구조적 기념비성’과 연관된다. 다음의 인용문에는 엑서터 도서관의 입면에 대한 칸의 사고가 나타난다. “창문은 위쪽에서 보다 크고 아래쪽에서 보다 작다. 아치들에서 그러한 변화를 볼 수 있다. 그것들은 힘의 단계적인 변화를 형성하고 있다. 즉, 위쪽에서는 천사와 같이 춤을 추게 되고 아래에서는 끄끙거리게 된다. 이 건물을 볼 때 당신이 그러한 변화를 관찰하게 된다면, 전체로서 그것이 역할하고 있는 바를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다.”²⁸⁾



<그림 5> Archive 710.81 <그림 6> Archive 710.96 <그림 7> 중앙홀

23)Wurman, Op. Cit., p.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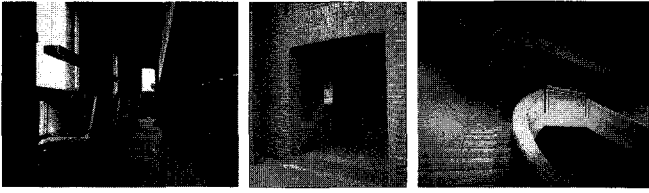
24)Wurman, Op. Cit., pp.179-180

25)Wickersham, Op. Cit., p.142

26)Wickersham, Op. Cit., pp.140-141

27)외주부의 바닥판을 실제로 지지하는 구조 부재

28)Wurman, Op. Cit., p.178



<그림 8> 개인열람석 <그림 9> 아케이드 <그림 10> 나선형 진입계단

이상으로, 엑서터 도서관의 각 방(room)들과 평면(plan)을 구조와 빛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구조와 빛에 의해 개별성을 획득한 각각의 방들은 서로 공유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것을 기반으로 전체의 평면을 구성하고 있음을 엑서터 도서관의 평면과 단면 계획안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았다. 즉, 이러한 공유성은 물질적인 실체로서의 구조와 비물질적인 실체로서의 빛에 의해 획득되는 형상·질료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5.2. 현상학적 측면

루이스 칸은 머릿속에서 떠올린 도서관 사서의 이상적인 행위를 통해, 엑서터 도서관의 전체적인 개념을 정립하였다. “내관자들의 관심을 특별히 끌게 하는 그러한 선택된 책들에 내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서가 책을 정리하는 장소로서 도서관을 생각한다. 도서관에는 사서가 그러한 책을 놓을 수 있는 커다란 책상이 있어야 하며, 내관자들은 그 책을 들고 빛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²⁹⁾라는 칸의 말에서 ‘커다란 책상’의 의미는 책으로의 초대와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내관자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배움에 대한 바람’은 이러한 초대의 장소에서 ‘배움에 대한 영감’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감은 책을 선택한 내관자들에 의해 ‘빛이 있는 곳’에서 독서라는 행위로 실현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인간이 공유하는 의식, 즉 2장에서 살펴본 ‘원초의 학교’로부터 비롯되는 ‘배움에 대한 바람’을 기반으로 한다. 또 이것은 엑서터 도서관의 평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인 도서관의 ‘기본형식(Form)’이 되며, 칸의 ‘디자인(Design)’을 통해 실체로서 구현되었다. 즉, ‘책들이 놓인 수평의 커다란 책상’을 의미하는 공간은 커다란 원형 개구부를 통해 서가가 보이는 중앙홀로 실체화되었으며, ‘빛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공간은 벽돌 기둥에 의해 분절된 개인 열람석으로 실체화되었다.<그림 7, 8>

그러므로 중앙홀과 서가 그리고 개인열람석은 구조와 빛을 통해 각기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는 방(room)들이 되지만, 동시에 이것들은 시설/제도로서의 도서관을 이루는 평면(plan)을 구성하고 있다. 이때, 부분으로서의 각 방들이 가지는 독자적인 성격은 전체로서의 평면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방들은 그것들의 전체인 평면을 이룰 때,

비로소 각각의 존재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은 서로 바뀌거나 분리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1) 중앙홀에서의 개별성과 공유성

중앙홀을 이루는 구조는 내주부의 구조와 독립되어 있고 빛의 성질도 서로 다르지만, 정사각형이 지나는 기하학적 질서로 인해 내주부에 등질하게 접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질료적 측면을 통해 중앙홀은 내부의 어떤 공간에도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 4면의 벽과 기둥, 그리고 기둥과 보는 일체로 접합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체로 된 구조적 표현과 균질한 빛(고축광)으로 인해 중앙홀은 하나의 통일된 공간으로 인식된다. 특히, 단면상에서 지붕층까지 개방되어 주위의 모든 방들과 접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성격이 보다 강화된다. 이러한 독립성과 통일성은 형상·질료적 측면을 통해 ‘경험’되는 중앙홀의 공간적 특성이며, 개인열람석이나 서가의 공간적 특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중앙홀에 내재하는 현상학적 측면의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그 공간이 엑서터 도서관의 전체 건물에 있어서 중앙홀(main entrance hall)로서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다.

루이스 칸은 중앙홀에 대해 “도서관은 파일이나 카탈로그를 뒤져서 책을 찾는 곳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책을 찾아야 한다. 단지 넓은 책상만 놓인 그런 도서관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그 책상은 하나의 코트(court)가 된다. 그것은 책들이 놓여 있고 그 책들로의 접근이 개방되어 있는, 일종의 평평한 코트이다. 당신은 그것을 통해 책들을 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도서관의 수업’으로 초대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도서관은 하나의 교실이며, 당신은 거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정신(Library)’은 도서관 건물(a library)과는 다르다”³⁰⁾라고 언급하고 있다. 칸은 중앙홀에 ‘코트(court)’로서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그 속에서 내관자들이 ‘이용 혹은 선택 가능성(availability)’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책의 존재를 관계 짓도록 하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배움에 대한 영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대하였다. 즉, 그는 중앙홀과 서가를 함께 묶으로써 ‘이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또 이러한 가능성을 통해 내관자에게 각자가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 특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루이스 칸은 이러한 개별적 특성을 내재하는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을 코트(court)와 갤러리(gallery)라는 두 공간을 대비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다.³¹⁾ 특히, “책들이 다르다는 사실이 커다란 원형의 개구부를 만들게 된 이유이다”³²⁾라는 그의 말에서 원형 개구부는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30) Ronner & Jhaveri, Op. Cit., p.293

31) Brownlee & De Long, Op. Cit., The Forum of the Availabilities, pp.112-125

32) Wurman, Op. Cit., p.180

29) Kohane, Op. Cit., p.390

있다. 내관자들은 나선형 계단에 의한 우각 진입을 통해 전체 공간을 지각하면서 중앙홀에 이르게 된다.<그림 10> 칸은 중앙 진입과 우각 진입에 대한 검토를 29장이라는 상당한 수의 스케치를 통해 숙고하고 있다. 직선 계단에 의한 중앙 진입은 정면성을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인 반면, 우각 진입은 전체 공간을 균질하게 인식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때, 중앙홀의 벽면에 있는 원형 개구부를 통해 서가의 책들을 바라보면서 ‘책들로 초대받는 느낌’을 받고 ‘배움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도서관의 정신’³³⁾을 이해하게 된다.<그림 7> 이러한 원형 개구부는 내관자들을 서가로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책들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서가와 개인열람석으로의 인도를 단지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루이스 칸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그곳에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가서 볼만한 얼마나 훌륭한 공간이 있는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의 구조 [원형 개구부]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세계가 책들을 통해서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원형 개구부를 통해 책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카탈로그에서 한 권의 책을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³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중앙홀의 벽에 있는 원형 개구부는 주변의 내관자들에게 항상 책들을 보이게 할뿐만 아니라, 그 주위로 책을 읽고 연구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중앙홀은 책과 사람들, 그리고 서비스들의 가능한 많은 관계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내관자들에게 암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코트로서의 중앙홀은 그것 자체가 목적 공간이 아니라, 주위의 목적 공간들을 통합해서 상호 결합시키는 역할을 지니는 결합 공간이다.³⁵⁾ 그러므로, 주위의 방들은 중앙홀을 통해서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중앙홀은 이러한 주위의 방들에 의해 그 존재의미를 가지게 된다. 칸은 중앙홀을 ‘세계 내의 세계(a world within a world)’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즉, 코트로서의 중앙홀은 방(room)들로 이루어진 평면(plan)의 차원에서 이해되어

야 하며, 평면이 ‘방들의 사회’라고 할 때 이러한 ‘사회’의 근저에는 개별성을 지니는 각각의 방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어떤 속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홀에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서구나 개인열람석과 공유하는 속성 즉, ‘배움에 대한 영감’이라는 ‘도서관의 정신’이 내재하고 있다.

(2) 서가와 개인열람석에서의 개별성과 공유성

루이스 칸은 “도서관의 디자인은 두 개의 구별되는 공간적 성격, 즉 사람을 위한 성격과 책을 위한 성격으로부터 형태를 이끌어 낸다”³⁶⁾라고 말하면서, 내관자의 영역과 책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구분된 두 영역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책의 영역은 독자적인 서가의 체계를, 그리고 내관자의 영역은 열람실의 체계를 각각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체계는 정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책과 사람들 그리고 서비스들 사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관계가 일어나도록 연결되어야 한다고 칸은 생각하였다. 개인열람석과 서가는 중2층의 삽입으로 인한 층고 차이로, 시각적 연결이 원활해진다.<그림 11> 물론, 이러한 층고의 차이는 장서수와 개인열람석의 책상 수 사이의 비례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책을 위한 영역과 독서를 위한 영역 사이의 관계가 증진된다. 그런데, 칸이 프로그램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를 위해 단면을 조정했다는 것을 그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개인열람석은 하나의 방 속에 있는 방이다. 개인열람석은 그것의 위층과 아래층 모두에 책들이 놓여 있음을 인식시키는 방이다. 만약, 서가와 같은 층고를 가지는 열람실을 만들었다면, 나는 마치 가구나 장롱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곳은 책들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 당신은 그러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책들을 선택할 수 있다.”³⁷⁾

그리고 칸은 내관자의 영역과 책의 영역을 형상·질료적 측면을 통해 서로 분절시켰다. 즉, 서가를 구성하는 내주부는 하층과 책을 서가에서 꺼낼 수 있는 높이와 장서 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 층고라는 구조적 측면과 빛에 대한 고려로 인해, 책을 위한 장소로서 적절한 공간적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개인열람석에서는 벽돌 기둥에 의해 단위공간으로 분절되어 있는 공간의 볼륨이나 벽돌과 오우크 패널, 그리고 목재 책상 등의 재질감을 결정하는 구조적 측면과 개별적인 빛과 조망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또,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개인열람석과 중앙홀 사이에 있는 서가의 책들은 하나의 차단벽으로써, 중앙홀로부터의 시야나 소음을 적절히 상쇄시키는 시각적이고 음향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열람석은 독서를 위한 장소로서 적절한 공간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서가와 개인열람석이 지니는 각각의 공간적 특성은 구조와 빛에 의한 형상·질료적 측면을 통해 경험된다. 이러한 각각의 경험되는 공간적

33)Kohane, Op. Cit., pp.109-111

34)Wurman Op. Cit., p.109

35)천창이 있으며 그 주위로 방들이 둘러싸는 중앙공간은 엑서터 도서관 이전의 여러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트렌톤의 Bath House(1954-59)에서 탈의실로 겹쳐진 중앙의 외부공간은 남녀 탈의실을 통해 개개의 기능을 통합하고 있다. 또, 필라델피아의 브린모어대학 기숙사(1960-64)에서는 각 단위 평면의 중앙에 있는 3개의 오픈 스페이스가 특정한 기능을 지니는 목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개개의 목적 공간들을 연결하고, 건물의 전체 기능을 통합하는 결합공간이다. 그리고 칸은 엑서터 도서관 이후에도 이러한 코트로서의 중앙공간을 많은 작품에서 반복하고 있다. 특히, 예일대학의 영국미술연구소(1969-74)에서 두 개의 코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는 엑서터 도서관의 중앙홀이 반영되고 있음을 그의 스케치(Archive. 805.76)에서 알 수 있다. 또, 이 스케치의 좌측에는 브린모어 대학 기숙사와 리차드 의학 연구소(1957-64)의 평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 평면을 통해 루이스 칸은 예일 센터에 있는 두 개의 코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예일 센터의 미술관 영역과 도서관 영역을 두 개의 코트를 통해 통합하고, 코트 주위의 목적 공간들을 연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6)Latour, Op. Cit., p.69

37)Wurman, Op. Cit., pp.179-180

특성을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중2층 열람석

한편, 서가의 중2층으로 인해 개인열람석과 서가 사이의 시각적 연결이 증진된다.<그림 11> 특히, 중2층의 바깥쪽 둘레로도 개인열람석이 배치됨으로써 책과 사람들 사이에 보다 많은 시각적 관계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개인열람

석의 공간은 독서와 연구로 고무된 분위기에 둘러싸인다. 그러므로 서가라는 책의 영역과 개인열람석이라는 내관자의 영역은 '배움에 대한 영감'이라는 고무된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서가와 개인열람석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학적 공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성에는 내관자들에 대한 개별적 선택을 배려하고 있다. 칸은 "어떤 학생들은 안락의자에서 팔다리를 쭉 펴고 있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큰 책상에 앉기를 좋아한다. 또 어떤 학생들은 그 중간쯤에 되는 방식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는 외주부에 개인 열람석과 일반 열람실의 커다란 책상을 함께 둌으로써 내관자들에게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취향에 따른 선택 가능성을 통해 내관자들에게 자신의 개별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엑서터 도서관의 내주부와 외주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방들과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현상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내주부는 책의 영역으로서 그리고 외주부는 독서의 영역으로서 각각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서가의 외주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열람석과 일반 열람실은 배움에 있어서 상보적인 두 행위인 개별적인 독서와 토론이나 상호교류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공간은 결국 배움에 대한 영감이라는 공유된 속성을 실현하게 되는 장소가 되며, 특히 이러한 속성은 개별적 속성을 보장하는 선택의 가능성을 통해 한층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엑서터 도서관의 계획 과정에 담긴 루이스 칸의 건축적 사유를 추적해 보고, 이를 개별성과 공유성이 지니는 양면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엑서터 도서관의 기본형식인 평면의 3중 구성과 단면의 3층부 구성은, 루이스 칸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행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출한 건축적 표현으로, 도서관이 지녀야 할 시설/제도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2) 중앙홀, 내주부, 외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엑서터 도서관의 각 방(room)들은 서로 독립적인 결합 방식으로 전체 평면(plan)을 구성하고 있다. 이때, 구조와 빛을 통해 개별성을 획득한 각각의 방들은 공유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평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개별성과 공유성은 물질적인 실체로서의 구조와 비물질적인 실체로서의 빛에 의해 획득되는 형상·질료적 측면이다.

3) 중앙홀은 구조와 빛에 의한 형상·질료적 측면을 통해 독립성과 통일성이라는 현상학적 측면의 개별성을 지닌다. 또 코트로서의 중앙홀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서가나 개인열람석 공간과 공유하는 속성인 '배움에 대한 영감'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유된 속성은 선택 가능성이라는 개별적 속성을 바탕으로 주위의 목적 공간들을 통합하여 상호 결합시킨다.

4) 내주부는 책의 영역으로서 그리고 외주부는 독서의 영역으로서 각각의 개별성을 가진다. 또, 서가를 공유하고 있는 개인열람석과 일반 열람실은 배움에 대한 영감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며, 내관자에게 두 공간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5) 마지막으로 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개별성과 공유성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모두 상대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근대건축의 보편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침해당한 '개별성'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며, 현대건축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한 단편인 개별주의적 특징으로 인해 간과되고 있는 건축에서의 공통적 함의 즉, 시설/제도로서의 건축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공유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이분법적 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루이스 칸의 건축적 사유는 개별성과 공유성이라는 이중적인 양자 개념 사이를 서로 이행(移行)하는 과정을 통해 건축이 지니는 '시설/제도'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참고문헌

1. Brownlee, David B. & De Long, David G., Louis I.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91
2. Latour, Alessandra,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Rizzoli, New York, 1991
3. Ronner, Heinz & Jhaveri, Sharad, Louis I. Kahn: Complete Work 1935-74, Birkhäuser, Basel, 1987
4. The Louis I. Kahn Collection, The Louis I. Kahn Archive; Personal Drawings, Vol.4, Garland Publishing Inc., New York, 1987
5. Wurman, Richard Saul,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Rizzoli, New York, 1986
6. 前田忠直, 루이스·카논 연구, 鹿島出版會, 東京, 1994
7. 김광현, Le Corbusier와 Louis Kahn 건축의 비교를 통한 '시설'의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10호, 2001
8. 안용희, 루이스 칸의 건축존재론, 서울대 박사논문, 2002
9. 오광석, 루이스 칸의 엑서터 도서관 스케치 분석을 통한 기본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4권3호, 2005
10. Kohane, Peter, Louis I. Kahn and the Library: Genesis and Expression of Form, VIA, No.10, 1990
11. Wickersham, Jay, The Making of Exeter Library, The Harvard Architecture Review, No.7, 1989

<접수 : 2005. 10. 30>